**TUDOR와 올 블랙스, 그리고 보든 바렛이 공유하는
#BORNTODARE 정신**

**명성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럭비 국가대표팀 올 블랙스(All Blacks)와 폭발적인 공격수 보든 바렛(Beauden Barrett)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TUDOR(튜더)와 #BornToDare(대담하고 용기 있는 도전을 위한 삶) 시그니처의 홍보대사로 활동해 왔다. 럭비는 숭고한 가치를 가진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스포츠이자, 대담하게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스포츠로, TUDOR 브랜드의 창립 정신을 충실히 반영한다.**

**TUDOR is #BornToDare**

시그니처는 브랜드의 역사는 물론 오늘날 갖는 상징성을 잘 보여주며, TUDOR 시계를 착용하고 땅, 빙하, 하늘, 심해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우리 주변 대담한 사람들의 모험을 의미한다. 나아가 뛰어난 가성비로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시계를 만든 TUDOR의 창업자인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의 시계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TUDOR를 현재의 성공으로 이끈 타협하지 않는 접근을 대변한다. 첨단 시계 산업에서 TUDOR가 이룩한 혁신은 중요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삶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정상급 홍보대사들이 “Born To Dare”정신을 알리고 있다. 보든 바렛이 이끄는 올 블랙스는 TUDOR의 메시지를 새로운 고객에게 전하기 위한 홍보대사로 합류했다

**1903년부터 이어져 온 타협하지 않는 정신**

뉴질랜드의 럭비 국가대표팀인 올 블랙스는 190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75%를 상회하는 승률을 달성해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450만 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15만 명의 럭비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럭비는 뉴질랜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 스포츠다. 유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최정상급 트레이닝, 럭비를 향한 과감한 비전, 겸손함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영구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 블랙스는 스타 플레이어가 이끄는 팀 이상의 결과를 기록하며 성장해왔다.

국제 럭비 경기는 매우 거칠고, 뛰어난 체력을 요구한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든 면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테스트 매치'라고 불린다. 압박감 속에서 신체 능력과 기술력, 지구력, 정신력 등 선수들의 다양한 면이 시험대에 오른다. 모든 테스트 매치에 임하기 전 올 블랙스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경이로운 마오리 부족의 전통 의식 '하카(Haka)'를 추며 출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다. 하카는 선수들의 출신과 그들이 대표하는 국가,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시그니처이다.

올 블랙스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입단하는 유망주들은 전설적인 선수들의 지도 아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올 블랙스라는 이름은 상의, 하의와 양말까지 모두 검정색인 유니폼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올 블랙스의 저지는 전 세계 스포츠 의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은색 고사리 엠블럼이 달린 블랙 컬러의 저지는 뉴질랜드의 변치 않을 자랑인 올 블랙스의 문화 유산을 상징한다. 선수들은 팀을 상징하는 이 저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수호자로서 유니폼이 상징하는 가치를 한층 더 발전시켜 후배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믿는다.

**대담한 보든 바렛**

올 블랙스의 공격수 보든 바렛은 2016년과 2017년 세계 최고의 럭비 선수로 선정되었다. 럭비 선수 집안에서 태어난 보든 바렛은 2010년 19세의 나이에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프로 리그에 입단한 지 2년 만에 올 블랙스의 비주전 선수로 선발되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는 등번호 10번 유니폼을 입고 핵심 선수로 자리잡았다. 2015년에는 럭비 월드 챔피언스(Rugby World Champions)에서 올 블랙스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올해 9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서 두 번째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보든 바렛은 도전을 좋아하고 결단력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빠른 발을 무기로 {/t1}수비 {t2}라인의 조그만 틈을 파고 들어 상대팀을 놀라게 하고, 새로운 공격 기회를 얻어낸다. 상대적으로 호리호리한 체구를 지녔지만,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럭비 리그에서 과감한 경기를 펼치는데 체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앳된 나이에 걸맞지 않은 노련한 전술을 펼치는 선수이지만, 올 블랙스의 기본 정신인 겸손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t2}

**TUDOR 홍보대사 '올 블랙스', 또 한 번의 럭비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다**

4년마다 개최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포츠 행사인 럭비 월드컵, 그 아홉 번째 대회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된다. 일본에서 이미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럭비는 2015 럭비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이 예상 밖의 좋은 성적을 낸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9월 20개 팀이 2019년 럭비 월드컵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며, TUDOR는 공식 타임키퍼로 참여한다. 주요 참가 팀 중 하나인 뉴질랜드 대표팀 올 블랙스는 1987년, 2011년,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의 웹 엘리스 컵(Webb Ellis Cup)을 목표로 하고 있다. 뛰어난 팀워크와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스타일 덕분에 올해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2019 럭비 월드컵의 우승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매주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국가간 격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 블랙스를 위한 블랙 베이(Black Bay)**

올 블랙스와 보든 바렛은 자신의 강인함을 반영하는 다양한 TUDOR 모델을 착용한다. 빈티지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고, 블랙 PVD 코팅되어 "올 블랙" 컬러가 적용된 스포츠 워치인 블랙 베이 다크(Black Bay Dark) 모델과 상징적인 레드 컬러의 역삼각형 표식이 있는 회전 베젤로 유명한 블랙 베이 스틸(Black Bay Steel)을 착용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올 블랙스처럼 극한의 환경에서 시험을 거친 이 모델들은 TUDOR의 타협하지 않는 워치메이킹 철학과 전문성을 상징한다.

**TUDOR 소개**

TUDOR는 섬세한 스타일과 뛰어난 품질, 독보적인 가성비를 갖춘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다. TUDOR 브랜드의 역사는 롤렉스의 설립자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가 ‘The TUDOR’라는 상표를 등록한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그는 1946년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로 롤렉스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시계를 제공하고자 Montres TUDOR SA를 설립했다. 그동안 TUDOR 시계는 땅, 빙하, 하늘, 심해를 탐험하는 이들과 함께 해왔다. 오늘날 TUDOR 컬렉션에는 블랙 베이(Black Bay), 펠라고스(Pelagos), 글래머(Glamour), 1926 등의 플래그십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TUDOR는 2015년부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해 왔다.